

28살 생일 고진영... '우승 해피샷' 쏜다

US여자오픈 총상금 1100만 달러 역대 최대 세계 2위 코르다·렉시 톰슨 1, 2라운드 겨뤘



6일 밤(한국시간) 개막하는 제78회 US여자오픈 골프 대회 총상금 규모가 1100만 달러(약 143억3000만 원)로 정해졌다.

대회를 개최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6일(한국시간) “올해 US여자오픈 총상금을 지난해 100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늘리고, 우승 상금은 200만 달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US여자오픈 총상금은 1000만 달러, 우승 상금은 180만 달러였다. 이로써 올해 US여자오픈은 총상금과 우승 상금 모두 역대 여자 골프 대회 사상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 총상금 종전 최다 기록은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지난해 US오픈의 1000만 달러였다.

우승 상금이 200만 달러였던 대회는 지난해 11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

어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이어 올해 US여자오픈이 두 번째다.

200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26억 원 정도다. 웬만한 LPGA 투어 대회는 총상금 자체가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다.

특히 US 여자오픈은 2021년 대회 총상금이 550만 달러였다. 불과 2년 사이에 두 배가 됐다. 우승 상금도 2021년 100만 달러에서 2배로 늘었다. 6월에 열린 US오픈 남자 대회의 경우 총상금 2000만 달러, 우승 상금 360만 달러 규모였다.

6일 밤 11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페블비치에서 막을 올리는 올해 US여자오픈에서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은 이틀간 세계랭킹 2위 벨리 코르다, 렉시 톰슨(이상 미국)과 1, 2라운드를 치른다. 코르다와 톰슨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주목받는 선수들이다.

고진영은 7일 오전 0시50분 10번 홀에서



고진영이 6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US여자오픈에 앞선 연습 라운드 17번홀 벵거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1라운드 티샷을 날린다. 더구나 고진영은 7일 자신의 28번째 생일을 맞는다. 해피샷을 날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60주째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고진영은 열흘 전 현지에 도착해 적응 훈련에 돌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8시50분, 시청자가 많은 미국 동부 지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50분이라는 티타임을 고려하면 대회조직위원회가 좁은 흥행 조에 편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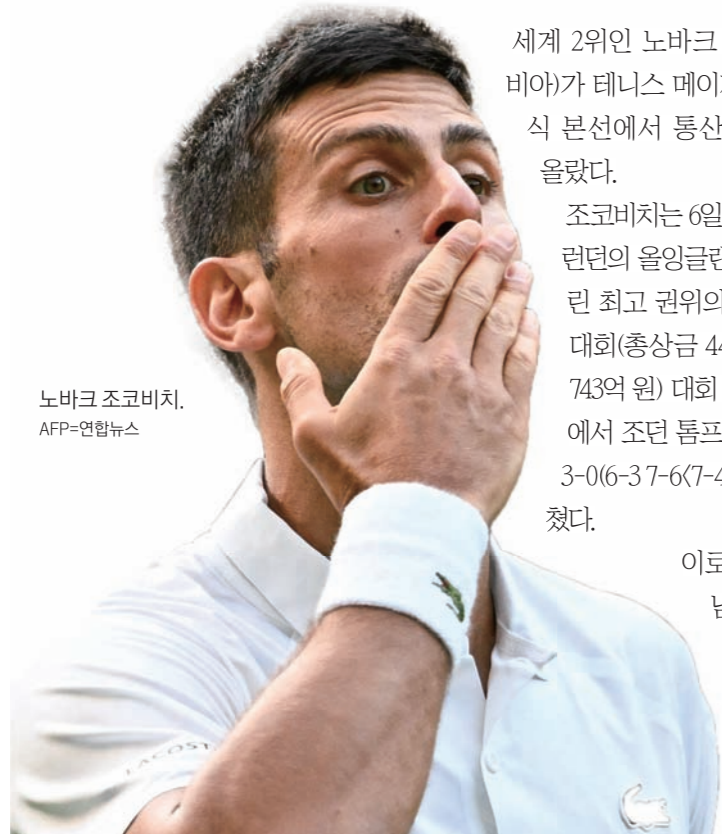
같은 시간 1번 홀에서는 2011년 US오픈 우승자인 초청 선수 유소연이 지난해 오거스타 내셔널 여자 아마추어 우승자 애나 데이비스(미국), 그리고 2021년 US여자오픈 챔피언 사소 유카(일본)와 경기에 나선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의 '대세'인 박민지는 7일 오전 6시13분 아마추어 황팅환(대한), 이와이 치사토(일본) 등 팬들에게 낯이 익지 않은 선수들과 10번 홀에서 티오프한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조코비치 테니스 메이저 대회 통산 350승

역대 3위... 올해 US오픈 등 360승까지 가능



노바크 조코비치. AFP-연합뉴스

세계 2위인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테니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본선에서 통산 350승 고지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최고 권위의 윌블던 테니스 대회(총상금 4470만 파운드·약 743억 원) 대회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조던 톰프슨(70위·호주)을 3-0(6-3 7-6(7-4) 7-5)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남녀를 통틀어 통산 세 번째로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350승 고지에 오른 선

수가 됐다. 은퇴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369승,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365승을 기록했다.

메이저 대회 하나에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승수가 7승이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산술적으로 올해 윌블던에서 남은 4승, US오픈에서 7승을 추가하면 올해 안에 360승까지 돌파할 수 있다.

윌블던 30연승을 이어간 조코비치는 32강인 3회전에서 토마스 마르틴 에체베리(32위·아르헨티나)-스탄 바브링카(88위·스위스) 경기 승자를 상대한다.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대회 5연패 외에 메이저 대회 단식 24회 우승, 세계 랭킹 1위 탈환, 윌블던 남자 단식 8회 우승 등의 기록을 세운다.

메이저 대회 단식 24회 우승은 은퇴한 마거릿 코트(호주)가 1973년 달성한 기록과 동률이 되고, 윌블던 남자 단식 8회 우승은 페더러가 2017년 달성한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여자 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사라 소리베스 토르모(84위·스페인)를 2-0(6-2 6-0)으로 꺾고 3회전에 진출했다. 시비옹테크는 페트라 마르티치(29위·크로아티아)-다이앤 패리(96위·프랑스) 경기 승자와 16강 진출을 다룬다.

올해 윌블던은 우천으로 경기 진행에 차질을 빚어 아직 1회전도 끝내지 못한 선수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지붕이 있는 센터 코트에서 경기한 조코비치, 시비옹테크는 3회전에 일찌감치 올라 남은 경기 일정에서 다소 유리하게 됐다.

3회전에 오른 선수는 남자 단식 조코비치와 안니코 신네르(8위·이탈리아), 여자 단식 시비옹테크와 다리아 카사르티나(10위·러시아) 등 네 명이 전부다.

2007년생 미라 안드레예바(102위·러시아)는 여자 단식 1회전에서 왕시위(65위·중국)를 2-1(6-4 3-6 7-5)로 꺾고 2회전에 올랐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아마당구 최고수 최성원 '프로의 벽' 실감

위마즈에 연장전서 0-4패배

한국 아마추어 3구 무대를 주름잡고 프로당구 무대에 뛰어든 최성원(후은스)이 데뷔 첫 승을 다음 대회로 미뤘다.

최성원은 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3~24 시즌 2차 투어 실크로드&안산 PBA-LPBA 챔피언십 PBA 128강전에서 튀르키예 출신의 강호 비롤 위마즈(엘컴저축은행)에게 탈미가 잡혔다.

최성원은 하이런 10점을 몰아치며 1세트를 15-2로 먼저 가져갔으나 2, 3세트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위마즈에게 2-15(30닝), 0-15(30닝)로 져 역전을 허용했다.

다시 4세트를 15-10으로 만회해 세트점수 2-2를 만든 최성원은 승부처에서 0-4로 패배 대회를 마감했다. 뱅킹에서 승리한 위마즈가 초구를 선택해 침착하게 4득점을 뽑아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최성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큐를 조준하고 있다. PBA

최성원은 지난달 열린 1차 투어에서도 박한기에게 1회전에 1-3으로 패배한 바 있다. 2개 대회 연속 1회전 탈락이다.

당구 '4대 천왕'으로 꼽히는 다니엘 산체스(스페인-에스아이)가 1라운드에서 탈락한 데 이어 최성원까지 져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은 신인 강호 두 명의 프로 무대 첫 승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점차 적응해가며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은 위안거리다. 이번 대회는 전 경기 상록수체육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